

# 한국민속예술축제 심사기준 마련

## 시·도 및 출전팀 관계자 회의에서

포천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준비를 위한 시·도 및 출전팀 관계자 회의가 지난달 30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각 지방의 전래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KBS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에서 각 1팀씩 모두 2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마련된다.

또 한국민속예술축제 개막 하루 전인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속예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각 시·도 및 출전팀 관계

자들은 올해 축제에서 향토민속 원형을 재현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세부행사일정 등을 조율했다. 또 민속의 전통성과 복식 및 연희의 예술성, 연희성 및 문화창달에 대한 기여도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관중의 호응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 나흘간의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공식 경연 외에도 포천시립민속예술단과 경기도립예술단, 김근희 무용단의 공연, KBS 국악한마당 특별야외공연, 김영일 호 콘서트, KBS 라디오 공개방송, 일본 호프도시와 중국 화이베이시 민속예술단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또 전통문화체험을 테마로, 한지 공예, 떡에 치기, 도예 및 물레, 농기구체험, 전통혼례시연, 허브향기 터널 체험, 전통복각관인출 등 모



포천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준비를 위한 시·도 및 출전팀 관계자 회의가 지난달 30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두 17종류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원만 3천명에 달하며 관중은 연인원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포천시는 이번 행사 참가

인원만 3천명에 달하며 관중은 연인원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신북면 기지리 틀뫼이 동해세우기

###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장려상 수상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틀뫼이 동해세우기 전통민속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안성시 종합운동장내 실내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축제에는 경기도내 26개 팀이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펼쳐 보였으며, 포천을 대표한 동해세우기는 약35년 전부터 정착하여 거주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틀뫼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민속의식으로 소재 및 연출 등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동해세우기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다음날인 열여섯 귀신날에 햇볕놀이로 필요한 수수깡, 조짚, 볏짚 등을 집집마다

모아 동해 (약10m, 둘레 4m)를 세우고 지역주민과 출향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천주산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달남을 향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몰아내며 소원성취와 안녕을 기원하는 민속으로 계속해 오고 있으며, 옛날에는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개(犬)를 잡아 대동제사인 구제사를 지냈다는 유래도 전해져 내려온다.

포천시는 이번 축제의 연출은 길놀이, 동해에 필요한 재료 수집, 동해세우기, 소지, 기원제, 달남놀이, 뫼이 등 사실에 근거한 연출로 이 마을 향토 고유 민속 발굴 및 재현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틀뫼이 동해세우기 전통민속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안성시 종합운동장내 실내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 한음 이덕형 선생 추모 전국한시백일장

### 오는 15일까지 접수 마감

한음 이덕형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전국한시백일장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한시 동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전국한시백일장을 개최한다.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향교, 유도회포천시지부, 포천한시사가 후원하는 이번 백일장은 선조조대 명재상이며 청백리의 표상인 한음 이덕형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한시백일장의 시제는 '추모 한음 이덕형선생'이고, 압운은 '천·현·0·0·전'으로 마법표 압운은 대회 당일 발표한다.

고선은 (사)한국한시협회 고선준 직을 존용하며, 당일 11시 30분부터 작성해 오후 1시까지 90분간 치러진다. 고선시관은 사계 권위자가 맡게 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포천문화원으로 직접 제출, 홈페이지 www.pcmh.or.kr 또는 팩스 031-536-1020으로 하면 된다.

시상식은 당일 오후 4시 입상자 발표 및 시상식이 이뤄지며 입상작품집을 발간해 참가자 전원에게 추후 우송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금은 장원 1명 1백만원, 차상 2명 상금 각 50만원, 차하 3명 상금 각 10만원, 참방 10명, 가자 10명 각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문화원(031-532-5025, 5055)으로 하면 된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23일開幕

### 13개국 86명 작가 참여 내달 23일까지 전시

오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 간 포천반월아트홀 안팎이 국내외 저명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설치, 멀티미디어, 비디오아트 작품들로 뒤덮인다.

포천시만의 독자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기획된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인도, 필리핀, 태국, 방글라데시, 키르가스 등 13개국 86명의 작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3일 개막된다.

이번 미술제의 주제인 길(Road/Route)은 6·25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기나긴 역경 속에 묻혀 있는 애환과 슬픔을 예술로 승화하는 동시에, 한국인의 가슴속에 각인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졌다.

포천아시아미술제는 본 전시와 특별전을 구분하는 국내 여타 비엔날레와는 달리 이 같은 구분을 없애고 작품 영역별로 포트폴리오 1, 2, 3, 4라는 명칭으로 나누었다.

《포트폴리오 1》은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꾸며지고 《포트폴리오 2》는 퍼포먼스, 《포트폴리오 3》은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제1회 포천아시아미술제 홈페이지 주소는 Pocheon Asian Art Festival의 머릿글자를 딴 www.paaf2005.org이며 참여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뉴스레터, 포스터앨범,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 韓國의 선비정신 · 8

#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개탄한 이해(1496년 ~ 1550년)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이해의 본관은 진보이고 자는 정명, 호는 운계, 식의 아들, 퇴계 이황의 형이다. 1525년(중종20년) 진사가 되고 1528년(중종 23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간, 정언 등을 거쳐 직제학이 되었으며 이어 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첨지중추부사, 대사헌, 대사간,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대사헌으로 있을 때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형의 측근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이파를 탄핵하여 파직시키기도 한 그는 강직하여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선비였다. 학문도 출중하고 글씨도 잘써 당시 대유로 중망이 집중되었다.

당대의 권신 희락당대감으로 널리 알려진 김안로와 이우에 살고 또 친인척 관계도 되었다. 그래서 김안로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여러차례 그를 도와주는 뜻에서 교우하기를 청하고 높은 벼슬자리에서 등용하려 하였지만 끝까지 그 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대의 세력권이 있던 구수담은 이해와 과거 동기였는데

자기편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탄핵하였는데 무고함이 밝혀져 도리어 구수담이 파직되어 조정에서 쫓겨나서 죽었다.

또한 이우강이란 자는 사극(예문관 춘추관)에 같이 근무하였는데 자기집에 들러달라고 여러차례 청하였으나 이파의 측근이라 그 집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우강이 앙심을 품고 이해를 중상모략하여 이파에게는 환심을 사고 자신의 분함을 풀려고 이해가 구수담과 한패거리였다고 무고하여 옥사가 벌어졌다. 옥사가 급박해지자 어떤 사람이

하위로 자백하면 죄를 모면하고 출세의 길도 열린다고 이해를 괴었다. '하위를 자백하여 구차하게 사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 이해가 탄식하며 스스로 상소문을 올리려고 하니 취조관이 이파를 두려워 하여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장형을 받고 감수에 유배되었는데 유배도중 양주에 이르러 죽었다.

한국선비의 높은 기상이나, 그후 악당 이파의 무리는 윤원형 등과 같이 대운을 제거하는 을사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와 권세를 누리었다.

불의는 언젠가는 바로 잡히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 그 후 악당의 무독 윤원형, 이파의 무리는 제거되고 이해를 포함한 그 쫓겨 이우강의 무리까지 숙청되었다.

이해선생의 관직이 회복되고 예조판서에 추증되고 정명의 시효가 내려지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영주의 삼봉서원, 예안의 청계서원에 제향되었다.

## 자유기고

# 운악산 단풍축제



강승봉 포천시 화현면장

운악산은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와 가평군 하연 하판리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는 해발 936m로 포천에선 국망봉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최근에는 등산인구가 늘면서 등산로가 잘 정비된 덕으로 운악산 오르기를 땀흘려 오르듯 쉽게 오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해도 운악산 오르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옛날 동네 어른들은 부정을 탄 사람이 운악산에 오르면 산이 노하여 다친다고 했다. 그래서 새우젓이나 개고기 등 비린내나는 음식을 먹거나, 못 볼 것을 보면 부정을 탄다 하여 산에 오르기를 금기시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등산객들이 운악산에서 종종 조난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속설이 아니더라도 운악산이 험준한 것은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운악산을 경기의 5악의 하나로 꼽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옛날부터 운악산의 산세와 기개, 기암절벽, 가을의 단풍은 경기의 소금강으로 일컬어 질 만큼 아름답다. 맑은 가을날에는 운악산 정상에서 서울을 보면 남산타워가 한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아파트 숲이 그대로 시야에 들어온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인천 앞 바

다에 배가 보인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하지만 오늘날의 대기 오염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운악산은 역사적으로도 공예가 기거했다는 설이 있으며 유적으로 공예성터, 공굴터가 남아 있다. 그리고 운악산 중턱에는 폭 40m, 높이 70여 m의 무지개 폭포가 장엄하게 증상을 잡고 있으며, 신선대, 망경대 등의 절경과 기암이 등산로를 따라 산의 매니아를 유혹하고 있다.

특히 무지개 폭포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심오리나 되는 강구동 마을에까지 들린다고 하니 그 장관은 볼 만하다. 비가 그친 오후 맑게

갭날 항상 폭포아래에는 일곱 색깔의 무지개가 꽃혀 있었다.

지금은 공해로 인해서 그런지 어쩌다 한번씩 무지개가 선다. 화현면민들은 요즈음 운악산 아래 광장에서 제4회 운악산 단풍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주민들의 모임을 분주하고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 축제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간 운악산 광장에서 열린다. 주요 행사로 전야제행사, 기념행사, 공연행사, 먹거리장터 등이 열리고, 관광객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배려해 화현면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함에 따라 그 동안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오던 축제와는 전혀 다른 특성화되고 차별화 된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운악산 단풍축제가 짧은 기간에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주민들의 열의와 성원이 있는 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운악산 단풍축제가 화현면민들이 운악산을 아끼고 사랑 하는 만큼 풍요롭고 즐거운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 초대 漢詩

## 追慕漢陰先生(추모한음선생)

### 先生睿智稟於天(선생지혜를어린)

선생의 뛰어난 슬기는 하늘의 주신 것이며

### 文筆奇才曠曠年(문필기재조광년)

문필이 뛰어난 재주는 오랜 세월 베풀어 준다.

### 護國忠盡眞烈士(호국충진열사)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수호함은 참으로 절개 굳은 사람이며

### 爲民善政大名賢(위민선정대명현)

백성을 위하여 비르고 학인 정치함은 큰 명현이다.

### 平難計略千秋赫(평난계략천추혁)

난을 평정한 계책과 지략은 천추에 빛나고

### 濟世經綸萬世述(세계경륜만세술)

세상을 구제하고 천후를 다스림은 만세에 이어질 것이다.

### 首揆遺功青史及(수기유공청사급)

재상이 끼친 공은 역사에 미치지

### 後人崇慕聲靈(후인승모성영)

후인이 높이 사모하여 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楊基成 龍淵書院院長

## 초대 詩

# 108개의 사랑

또다 또다 작은 방의 아픔에 파장을 만들며 시간을 나누고 나누어 두드리는 대로

친구들을 불러오고 커피도 팔지않는 카페에 많은 글들을 열어보여주는데

지친 어깨는 키의 조합으로 그녀와 함께 들던 노래를 찾고

눈물을 만드는 사랑얘기를 글로 바꿀주는 109개의 자판

갑자기 한계가 속 떨어가 튀어나오지 않아 남아있는 108개의 사랑은 번외의 바다에

파도만 만들뿐



나지누 마흔문학회 회원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42)

# 청백리 윤이제(尹以濟) 대감



윤이제 대감은 평생을 울타리 없는 집에서 살았던 깨끗한 선비였다.

집에서 살았던 깨끗한 선비였다.

문신으로 군내된 용정리에서 출생, 성정(1628년~인조6년~1701년~숙종27년)하였는데 자는 여집, 본관은 파평, 증 판서 세징(世徵)의 아들이며 진주목사 윤기경의 아버지이다.

현종 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청환직(淸宦職) : 임금의 가까이서 모시는 관직)을 거쳐, 숙종 2년 의주부윤, 숙종6년 승정원 승지, 숙종 7년 충청감사, 숙종 8년 진하사경사은부사(進賢使兼謝恩府使)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숙종 12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이조참

관을 거쳐 한성판윤(漢城判尹)으로 승배하였다. '일일지정(一日之政)'에 오인(五人)이 초배(超拜)란 새로운 술어가 나왔는데 '이현일', '유하익', '유병현', '강선', '윤이제' 등이 임금님의 신임이 두터워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 벼슬길에 뛰어 올랐다는 말이기도 하다.

같은 날에 형조판서에 올랐다. 숙종19년 8월에는 어영대장(御營大將) : 지금의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관서(官署)를 겸임케 하자는 왕의 뜻이 전해지자 조신(朝臣)들이 너무 임무가 중하다는 이론이 있어 중지하였다. 숙종17년 4월 원접사(遠接使 : 중국사신인 치사를 영접하는 외교관이 되어 청의 칙사를 맞았으며 1692년 어영대장, 비변사제

조(備邊司提調) 등 수많은 문무 벼관, 당상(堂上) 등을 겸직하였으며 우참찬에 승임되었다.

갑술환국(甲戌換局) : 숙종20년 남인정국이 소론으로 넘어간 일)으로 사직되었다가 숙종 24년(1698년) 다시 서용되었으나 숙종27년 6월(1701년) 별세하니 74세였다.

조선조 역사상 이토록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통분사주하며 승승 장 관직을 화려하게 역임한 선비도 드물 것이다. 임금의 측근에서 지방 관찰사로 다시 승지로 외교관으로 무관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어영대장에 이르기까지 안 거친 관직이 없을 만치 화려하다. 외교의 관문이자 무역의 중시이었던 의주부윤, 수도 서울

의 특별시장 격인 한성판윤, 대통령 특별전권대사겸 축하사절단장 격인 사은사(謝恩使)나 진하사(進賢使)를 지냈다는 사실도 남아 얼마나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임금님의 신임을 두터이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년문과라는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도 있었지만 사실은 청백(淸白)의 관직생활을 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글 머리에도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글 머리에도 말했듯이 윤이제 대감께서는 평생을 울타리 없는 집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관말직에서 퇴직하였으면서도 고대광실, 호화주택, 높은 집을 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는 요즈음 세태를 보면 그에게 윤이제 대감의 행적을 살필 기회를 가지라곤 권하고 싶다.

윤이제 대감 같은 훌륭한 선비가 포천 출신이라는 점은 포천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필자연락처 02-932-2434